

올 겨울 광주·전남 평년보다 '따뜻'

올 겨울 광주와 전남지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비가 오는 날씨는 역대 두번째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늦게 공식 적설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2018년 겨울철 기상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까지 3개월 간 광주·전남의 평균 기온은 3.3도로 평년(1981~2010년) 2.8도 보다 0.5도 높았다. 지난해 12월 평균 기온은 3.8도로 평년(3.9도)과 비슷했으나, 1월과 2월은 각각 2.3도와 3.8도로 나타나 모두 평년 기온보다 0.8도 가량 높았다.

찬 대륙고기압 약화 기온 상승·구름대 생성 억제 광주, 관측 이래 첫 공식적설량 기록일 가장 늦어

광주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화된 데다,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주로 우리나라의 북쪽을 지나 1~2월에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다. 때문에 광주는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지난 1월31일에야 겨울철 첫 공식적설량 3.8cm가 기록됐다. 당초 공식적설량이 기록이 가장 늦었던 1955년 겨울에는 이듬해인 1956년 1월6일

로, 2.1cm의 눈이 쌓였다. 광주와 목포·여수·완도·장흥·해남·고흥 등 7개 지점의 평균 강수일수는 17.6일에 불과했다. 이는 관련 지표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비가 온 날의 일수가 역대 2번째로 적다. 역대 강수일수가 가장 짧았던 해는 1996년 13.6일이었다. 광주만 기준으로 했을 때 올 겨울 강수일수는 16일로, 비가 내린 날이 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 역대

2위는 2013년·1996년 강수일수 20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31일을 기준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려 겨울철 총 강수량은 증가했다. 최근 6개월(2018년 9월~지난달 28일) 간 광주·전남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2% 수준으로, 기상학적인 가뭄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기상청은 약 10km 상공의 제트기류가 북쪽 찬 공기의 남하를 저지한 데다,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에 따른 상승기류로 서해상의 눈구름대 생성이 억제돼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남규 기자

전남 농업인 월급제 도입 신청 실적 저조

전남도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지만, 예상보다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농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성공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뒷받침 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남도와 농협, 농민회 등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제매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월급제를 희망하는 16개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품목별로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 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3월부터 시행을 위해 농민에게 신청을 받은 결과 2월말 현재 2100여농가에 불과하다.

전남도가 목표로 잡은 600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내 전체 농가수는 14만여 농가다.

김정환 기자



봄이 옵니다 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성동구청 직원들이 맨지, 비올라 등 봄꽃을 심으며 새봄맞이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광주시, 비리단체 육성(?)...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논란

광주시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횡령한 단체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협세를 씌웠던 처럼 횡령한 단체를 제재하기는 커녕 보호·육성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19년 공예문화분야 시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심사를 통해 공예협동조합을 주관 단체로 선정했다.

올해 지원금은 1억5000만원으로 공예협동조합은 목공, 도자, 섬유 등 10개 분야 공예 체험학교를 운영한다.

문제는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해 보조금 1억24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됐는 데도 올해 또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점이다.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단체

는 광주시가 심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를 다시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올해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페어) 주관단체로 광주미협을 재선정했다.

광주미협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아트페어를 위탁 운영하며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를 광주시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광주미협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예규상 이미 사업이 완료되

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없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실 운영사례를 적발하고 환수조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리단체에 예산지원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는 옹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의회의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 40건 99억원 가운데 14건 28억원을 삭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보조금 지원 단체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은홍 기자

美 남부 토네이도 사망자 22명으로 늘어

3일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리 카운티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었다고 제이 존스 리 카운티 보안관이 3일 밤(현지시간) 늦게 밝혔다.

존스 보안관은 사망자 중에 어린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자가 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 카운티 당국은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서 곳곳에 있는 파편들로 인한 위험 요인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구조 작업을 중단했다.

그는 4일 해가 뜨는 대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앨라배마주 주민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앨라배마주 주민들에게 "토네이도와 폭풍은 매우 폭력적이다.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 유가족 및 친지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기도한다"는 말로 트윗을 맺었다.

IS, 시리아내 마지막 땅 사수 위해 결사항전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동부지역 강가의 마지막 남은 작은 거점을 지키기 위해 3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에 맞서서 하루 종일 격전을 벌였다고 AP와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바구즈 마을의 IS무장세력은 미사일과 매복기습조, 지하 땅굴을 이용한 불시 기습작전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연합군의 마지막 공습에 대항하며 지상전을 벌였고, 이 부근은 하루 종일 연합군의 마을 내 거점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시리아민주군으로 불리는 미군이 지원하는 부대는 2일 밤부터 바구즈 마을 내의 IS거점을 탈환하기 위해 총 공세에 돌입했다. 이는 민간인들의 피난을 위해 2주일 동안 멈췄던 공격을 재개한 것이다.

이 곳의 마지막 남은 땅 한조각을 탈환하는 것은 한 때 시리아와 이라크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한 채 이른바 '칼리파 제국' 건설을 장담했던 IS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IS는 이 곳이 점령당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의 험난한 지형속에 숨어 있는 사막의 비밀 어지트로 숨어들어 위협적인 활동을 계속할 공산이 크다.

시리아민주군(SDF) 지휘관들은 아직도 바구즈에 남아있는 IS 대원이 수 백명이나 되며 이들은 주로 땅굴과 참호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고 말한다. 또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공격법인 후방 기습, 사상자를 늘리기 위한 지뢰매설 작전, 적의 전진 뒤의 마을을 기습해서 인질들을 납치하는 작전들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섬별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아카드 사령관은 말했다.

실제로 3일 새벽 아카드의 부대는 여성 4명을 포함한 10명의 IS대원들이 지하 땅굴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서 기습공격을 당했다. 부대는 사적으로 대응했고, 이 전투에서 최소 2명의 IS대원이 죽고 나머지는 달아났다고 사령관은 말했다.

나이지리아서 송유관 폭발 50명 이상 실종

나이지리아 남부 넬메 송유관에서 원유가 유출된 뒤 발생한 폭발사고로 5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2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일 새벽께 나이지리아 남부 바엘사 주(州)의 넬메 송유관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폭발이 이어졌다.

사고로 인해 50여명 이상이 실종됐다. 이들은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기 위해 모인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나이지리아 아이테오 그룹이 운영하는 넬메 송유관은 수출용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아지프, 나이지리아 오안도 셀 석유개발회사(SPID)는 넬메 송유관의 공동 소유자다.

아이테오 측은 폭발 사건과 관련해 합구하고 있으며, 현재 송유관이 폐쇄 조치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AP통신은 자사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열된 송유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한 전문가는 "유정을 잠가버릴 경우 송유관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며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 중 하나다. AP통신은 나이지리아 석유 회사들의 원유 유출사건은 대부분이 고의적인 설비 파괴, 절도, 불법 정제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129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